

박맹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우리들의 창작물과, 결과물이  
 시대와 사회로부터 ‘제값’ 받아야’  
 지식산업발전, 출판계 통합 추구...  
 시장의 해묵은 과제 해결 주력  
 ‘제대로 된 모습으로 변해야 산다’

올봄 문화계의 최대 검색어는 ‘박맹호’다. 모든 일간지들이 그에 관한 얘기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제45대 박맹호회장(71·민음사회장) 당선 소식은 출판·문화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분명 핫이슈다.

40년 출판인생, 한국인문출판의 거장,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등 수상... 박회장의 ‘브랜드’만으로도 충분히 그럴 만 하다. 그러나 20여년만의 단행본 계열 협회장이란 일대 ‘사건’이 갖는 의미와, ‘박맹호체제’ 출범에 대한 범상찮은 기대야말로 뉴스밸류의 핵이다.

그런 기대는 “한국 출판 이대론 안된다”는 박 회장의 절박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출판이야말로 문화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연간 2,000 억원의 문화산업 예산 가운데 겨우 5% 정도만 출판 분야에 할애될 뿐이죠.”

다리나 항만 따위의 가시적 인프라에만 국가적 투자가 쏟아진 안된다는 얘기다. 대신 “출판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때 정보지식사회의 근간이 바로 선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선거가 있는지 한달 남짓. <출판저널>과 만난 이날 박 회장은 “모처럼 스케줄이 뜸해 좀 쉬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산적한 현안앞에 몸과 마음이 결코 한가로울수 없듯이, 예의 ‘출판진흥론’을 꺼낼때 목소리에 다시금 힘이 실렸다. 이는 언론 인터뷰때마다 반복된, 현실 타개에 대한 그의 강한 의지가 담긴 주장이다. 단순한 주장이라기보단, 출판계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스스로를 여미고 되새기는 실천적 다짐이다.

“그 대부분이 출판 현실을 보며 오래전부터 그 대안을 고민했던 것들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들이지만,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죠”

출판에 대한 정책 지원 크게 확대돼야...출판은행’ 설립 준비

그중에서도 단연 출판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출판은행이다. 이는 출판계가 부딪힌 어려움과 모순된 현실을 본질에서부터 파악하고, 제시한 해결책이다.

“기초과학이나 사회과학, 인문서를 막론하고, 출판·인쇄·유통 메커니즘의 선순환을 위해선 자금의 원활한 흐름이 필수입니다. 자금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통합적으로 운영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돈이 없어 좋은 책을 못내는 일은 없어야겠죠. 출판은행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박 회장은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도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정동채 장관과의 만남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 전폭적인 협조 의사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이제 기금 구성과 조달을 위해 부처 실무 차원에서 예산당국과 절충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일만 남아있다는 것. 이와 함께 대한출판문화협회 산하에 이미 별도의 출판은행설립준비위원회도 조직됐다.

특히 ‘지식산업발전’이란 테마는 선거 당시 공약의 첫머리에 내세울 만큼, 원로 출판인으로서 각별한 뜻이 담긴 문화적 비전이다.

“출판산업은 최신 정보와 고급 지식이 펼쳐지는 마당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과 함께 출판계를 아우르는 강력한 ‘맨파워’ 구축이 필요합니다. 유능한 인재들의 역량과 뜻을 모아 야 하며, 그걸 통해 문화정책 전반이 혁신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감당할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출판정책을 제안하고,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의 산실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 회장 취임 직후 대한출판문화협회에 구성된 ‘지식산업발전특별위원회’와 ‘출판문화정책포럼’ 등은 바로 그 구심체가 될 전망이다.

### 지식산업발전 위한 맨파워 동원, 출판계 구조적 문제 해결에 앞장

출판시장의 양극화나 유통질서 왜곡 등 해묵은 과제들도 그가 줄곧 해결 방안을 고민해온 것들이다. 잇단 서점 부도나 불법복사, 도서정가제 등 극히 비문화적인 출판문화를 고쳐가는 일도 최대 관심사중 하나다.

“이 참에 출판환경을 크게 바꿔볼까 합니다. 출판유통 메커니즘을 현대화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입니다. 오늘의 출판불황을 부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 ‘출판강국’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적 임무를 띤 ‘출판유통현대화특별위원회’도 출협 내에 발족됐다.

그처럼 역점을 두어야 할 또다른 핵심 과제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다. 박 회장은 일간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는 이미 주빈국 조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짜놓은 레일 위에서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쌓아올린 국민과 출판계 역량을 모은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출협이 맡아야 할 한국관 준비를 위해 출판계 내부에서 돈을 모아, 최소 17억원 정도는 마련할 계획이다. 박 회장 스스로 이미 거액의 자금을 회사키로 하는 등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특히 “출판계 전체의 단합된 의지와 힘을 모으는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좋은 책 만든다’는 대명제하에 출판계 통합 추구

이는 출판계 수장으로 박 회장이 특별히 염두에 둔 ‘출판계 통합’과 맥이 닿는 대목이다. 그는 회장 출마 당시부터 “출판 종류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뭉칠 것”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

“‘이해관계’란게 별 것인가요? 좋은 책을 만든다는 대명제

에 관한 한 이해가 일치될 수 밖에 없죠. 좋은 책을 만들어 널리 독자들에게 전하는 노력을 사심없이 기울이다 보면, 갈등이나 오해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입니다”

‘책 잘 만들어 공급·유통 잘하는 것’이야말로 ‘대통합’을 위한 첫 번째 단추란 얘기다. 극히 원론적이고 소박한 전제 같으나, 이는 박 회장 나름의 ‘깊은 뜻’을 에두른 것이다.

“모름지기 공적 직위나 자리를 발판으로, 사적·사회적 이해관계에 연연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갈등과 반목이 그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출협 회장인 저부터 이를 철저히 경계하고, 공인다운 처신을 하며, 오로지 좋은 책과 벗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섬으로써 모범을 보일 것입니다”

### 패러다임 바꿀때 출판계 제자리에 설 수 있어

박 회장이 취임하면서 크게 달라진 것이 또 하나 있다. 출판계를 바라보는 언론과 사회 전반의 태도다. 신문마다 앞다투어 게재되는 대문짝만한 인터뷰 기사와 선거 관련 소식,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의 성의있는 예우와 관심 등은 이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박 회장은 그런 분위기를 십분 살려 출판계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고, 위상을 높여갈 생각이다.

그로선 이런 것들이 새롭게 ‘자리’에 오르는 사람으로서 으레 해보직한 제스처어가 아니다. ‘뭔가 보여주자’는, 목표 지상주의는 더욱 아니다. 그가 내보인 것들은 필연적인 변화를 위한 최적의 선택일 뿐이다. 출판계의 바람직한 뭉에 대한 염원의 표출이기도 하다.

“우리들(출판계)의 창작물과,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이 시대와 사회로부터 ‘제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출판 자원을 총동원하고, 아우를 때 그게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모습으로 변화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그것이야말로 박회장에겐 최우선의 가치이자 덕목이다. **☞** 글\_박경만 편집주간 | 사진\_박신우 기자

